



황강, 12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9차 회의서 강조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 제반 임무목표 면밀히 주시하고 결심 내리고 자신감 확고히 하며 난관 돌파하고 완전한 승리 이룩해야

호옥정 참석

22일, 성당위 서기이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황강은 12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소집, 주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의 포치 요구를 착실하게 락착하며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목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심을 내리고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난관을 돌파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길림성의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성장이며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호옥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도록 추진할 데 관한 중공길림성위의 실시의견(임무 분공 방안)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발표한 중요 연설은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고 전력을 다해 개혁 임무를 조직, 실시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바 우리는 반드시 깊이 터득하고 결연히 관찰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을 향상시키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역사적 위치 확정(定位)과 시대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더불어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진리 추구와 실효를 강조해야 한다. 우리 성의 개혁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하고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요구에 따라 개혁의 혁신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개혁 원칙을 견지하고 '6대 규률'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층에서 대담히 시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개혁 정신으로 성당위 전원회의의 요구를 시달하도록 잘 틀어쥐어야 한다. 중앙의 정책을 긴밀하게 뒤따라 시달하고 특색 우세에 발붙이고 상부와 적극적으로 련결하며

국가의 전략 중점과 우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련의 중대한 표지성 개혁 조치의 조속한 현지 실시를 추진해 관련 개혁 시범점을 길림에서 솔선적으로 전개하고 정책 조치를 길림에서 앞장서 모색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자유무역구 제도 혁신 성과를 착실하게 학습하고 개혁으로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역추진(倒逼)하며 개방도 역시 개혁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함과 아울러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 개방으로 개혁, 발전, 진흥을 확실하게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성당위 12기 5차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임무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관건은 못을 박는 정신으로 시달을 잘 틀어쥐는 것이다. 책임을 실속 있게 다지고 폐환을 형성해야 하며 성급 지도자가 선두에 서서 전범을 틀어쥐고 관련 지역 부문과 단위는 직책에 맞추어 사업 계획 체계를 사업 실시 체계로 전환할 김으로써 책임이 명확하고 사슬이 완정하며 서로 맞물리는 개혁 추진 실시 기제의 구축을 확보해야 한다. 총괄

조를 강화하고 사업을 전면 가동해 선후 순서와 절주 및 시기를 합리하게 배치함으로써 제반 개혁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정확한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개혁 정신으로 개혁을 틀어쥐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력 방지해야 한다. 몸소 모범을 보여 가르치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낫고 말보다는 행동이 낫다는 것을 견지하면서 울타리를 허물고 장애를 제거하며 난관과 위험에 직면하여 과감히 도전하고 돌파함으로써 진정 결과로 말해야 한다. 보다 큰 힘으로 개혁 감독에 주력하고 '4가지 기층 진입'(四下基层)으로 시달을 틀어쥐고 '4불 2직'(四不两直)으로 감독조사하며 '4가지 불응남'(四不放过)으로 정돈 개선을 틀어쥐어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진짜 문제를 찾아내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혁 감독의 정밀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길림성 지도자, 성 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련석했다. /길림일보

연변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개 구체적 임무 시달' 계열보도를 내면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발전사상과 연변조선족 자치주당위 12기 6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민생 사업에서 거둔 연변의 풍성한 성과를 선전하는 것으로 조화로 운 연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지는 이번 기부터 특속 '연변 민생 실시' 전문보도를 신개 된다. 보도는 주요하게 연변에서 실시한 '6대 민생 제고 행동과 50개 구체적 임무 시달'의 총체적인 정황과 사업 성과들을 둘러싸고 연변의 8개 현시와 여러 기능부문의 민생실사 대상건설 진척과 단계성 성과, 사업작품 전환과 임무 시달, 사업효율 제고 등 내용들을 펼쳐보이게 된다. — 편집부

[연변 민생실사-돈화원 2면에]

27일부터 연길공항 겨울철 항공 시즌 집행

2024년 겨울철 항공 시즌 집행 시간은 10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 총 22주이다. 려객들의 다원화 출행 수요에 만족을 주고 저 연길공항은 계속해 항로 개발 강도를 강화하고 항로 네트워크를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항공편 시각을 최적화하고 각 항공사와 적극 소통 조율하여 여러 갈래 항로를 개통, 추가하고 있다. 시즌 교체후 연길공항은 14개 항공사 국내선 14갈래, 국제선 4갈래를 집행할 계획인데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장춘, 녕파, 남경, 성도, 항주, 대련, 청도, 연태, 유방, 서안, 서울, 부산, 청주, 울라지보스토크 등 18개 국내, 국제 도시에 이른다. 시즌 교체후 연길-녀파 직항 항로가 새로 늘게 되는데 11월 11일부터 구원항공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운항하고 항공편 번호는 AQ1571/2, 기종은 보잉 738이다. 연길-녀파 항공편 운



통화시의 가을은 울긋불긋 단풍이 든 도시경관으로 동화 속 세계에 찾아온 듯 이색적이고 아름답다. 도시구역의 록화경관 수준을 제고하고 '한개 거리 한개 풍경' 도시 록색 통로를 만들기 위해 통화시에서는 다년간 단풍나무를 주요 품종으로 하는 도시구역 록화에 힘써 아름다운 단풍도시로 탈바꿈했다. /길림일보

길림성 1만 2,000 여자루 불법총기 집중 소각

불법 총기 폭발물 소각, 안전우환 제거, 군중 안전 보장

10월 20일, 길림성공안청은 통화시에서 '불법 총기 폭발물 소각, 안전우환 제거, 군중 안전 보장'을 주제로 하는 불법 총기 폭발물 소각 활동을 진행했다. 총기 폭발물 불법범죄 단속 전문행동에서 전 성 공안기관이 압수한 불법 총기 폭발물들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소각했다. 2023년부터 길림성 공안기관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리념과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견지하여 타격과 예방을 병행하고 지역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일련의 강력한 조치로 불법 총기 폭발물의 류통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총기 폭발물 관련 신고와 관련 범죄사건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폭발범죄사건은 한건도 없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성 각급 공안기관의 공동의 노력과 사회각계의 지지, 협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소각 지령

에 따라 1만 2,000 여자루의 총기와 9,800여개의 관제같이 통화강철그룹 유한책임회사 용광로에 들어갔다. 이는 총기 폭발물 관련 위법범죄를 단속 하려는 길림성 공안기관의 결심과 신심을 한층 더 보여주었다. 길림성공안청 치안관리총대 책임자는 "전 성 공안기관은 총기 폭발물 위법범죄를 단속하고 정돈하는 주력군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정치적 위치를 한층 더 높이며 책임과 당을 강화하고 사건 해소와 난제 해결

을 심화하며 전면적으로 조사, 몰수하고 원천 정리를 추진하며 사회각계의 려량을 결집하고 당과 정부 주도, 공안 주도, 부문 협력, 전 국민 참여의 공동 관리 구도를 형성하여 총기 폭발물 문제의 반등 확신을 결연히 방지하고 중대 또는 특대 총기 폭발물 관련 사건과 사고의 발생을 결연히 방지함으로써 전 성 사회치안의 전반 국면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다."라고 전했다. /오건기자



요즘 들어 연길시의 벼 재배 주요 집중지역인 조양천진의 여러 농촌들은 벼수확으로 분망하다. 기계화 벼수확은 수확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효율도 높다. 올해 연길시의 벼 재배면적은 3.8만무에 달하는데 벼수확기 보유량이 120대가 넘어 당전 연길시 벼가을 작업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10월말전까지 벼수확이 전부 완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기계로 벼가을을 하고 있는 장면. /김홍석



농업농촌부: 남새 가격 계절성 하락 예상

농업농촌부의 최신 모니터링에 근거하면 10월에 들어선 후 일부 남새 가격이 9월보다 일정하게 하락했다. 가을철 남새가 점차 출시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남새 가격은 계절적 하행 통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료해에 따르면 9월 중하순 대규모의 강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동북, 화북 등 한랭지 남새가 빠르게 시장에 퇴출하고 하북, 산서 등 남새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며 이외 찬 공기와 두차례 태풍의 중첩 효과의 영향하에 감소, 안휘 등지의 남새 생산, 수확, 운송 난도가 커져 원가가 늘어났다. 농업농촌부 농업상황조례에 근거하면 현재 전국 남새밭 면적은 1.05억무로 동기 대비 90여만무 증가해 가을겨울 남새 공급 보장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했다. 10월은 가을남새 출시 고봉기로서 배추, 무우, 양배추 등 가을남새가 대량으로 출시되고 시설에서 생산되는 도마도, 오이, 고추 등이 륝속 수확기에 들어서는 외 또 주요 생산구들의 날씨 조건이 총체적으로 유리하여 남새 공급량이 가일층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남새 내식성이 향상되고 운수, 저장 과정에서의 소모가 떨어져 운수 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적으로 향후 대법위의 재해성 날씨가 나타나지 않으면 남새 가격은 점차 떨어져 계절성 하행 통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넷